

청소년의 성관계와 피임

:: 배진술 이화여대부속고 2년(청소년명예기자)

성관계를 경험하는 연령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사랑한다면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청소년들,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임신, 성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걸까?

다른 청소년들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나는 중학교 때까지 '성교육' 하면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을 해서 (중간생략 후)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자궁에서 열 달을 자란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하는 식의 "그렇고 그런 성교육"이라든지, 대체 언제 촬영한 건지 모르는 매우 허접하고 촌스러운 필름의 성폭력예방 비디오라든지, 갈잡은 순결교육이라든지, 순전히 세뇌 위주의 교육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왜 청소년은 순결을 지켜야 하는 걸까? 이런 순결 위주의 성교육이 지금 청소년들의 실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피임은 내가 알아서 하겠죠, 뭐'

내가 가장 충격 받은 성교육은 고등학교 1학년 생물시간이었다. 예쁜 처녀 선생님 수업이었는데, 그 날은 사람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다.

단원의 마지막 즈음에 피임 얘기도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피임 방법을 사진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는 마지막으로 콘돔을 직접 꺼내어 보여주셨다. 나는 '아하! 청소년 성 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터라 그다지 놀라진 않았지만, 성관계를 해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로부터 들은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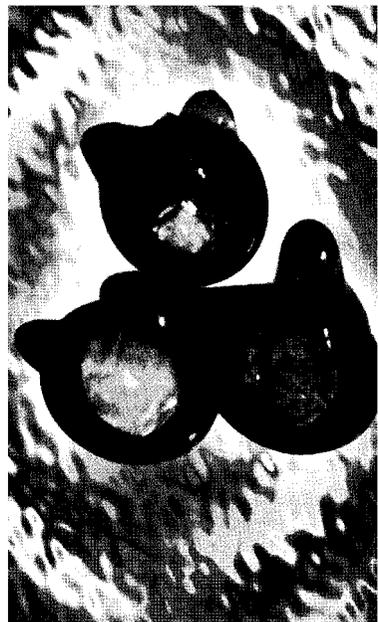
진한 내 친구는, '콘돔이 뭐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콘돔이 언제 왜 필요한지는 알아도 실제로 처음 보는 아이들도 많았다.) 선생님은 콘돔을 꺼내서 직접 냄새도 맡아보고, 눌러 당겨도 보며,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아기를 가질 계획 없이 성관계를 할 때에는 꼭 피임을 해야 한다." 고 하셨는데, 그 때 우리 반에 그다지 '질이 좋지 않은' 한 남학생이 "저는 콘돔 끼고는 답답해서 못하겠던데요, 고무장갑 끼고 콧구멍 파는 기분이라서요." 라고 말했다. 그 런 후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만 얘기하는 척 하면서, 실은 반 전체에 다 들릴 만한 큰 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귀담아 듣지 않아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주위에 워낙 임신하고 낙태하고를 밥 먹듯 하는 애들이 꽤 있어서, 아젠 놀라지도 않아.”

“섹스? 사랑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냐? 피임 하면 되지, 뭐.”

정말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은 걸까? 피임을 했든 하지 않았든, 성관계 후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남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낙태수술의 비용 지불이 전부인 걸까? 열여섯, 꽃다운 나이에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고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않지만 저질스럽고 인상이 찌푸러지는 농담 따위의 얘기였던 듯싶다.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니가 콘돔 안하면 피임은 어떻게 했어?”라고 물으시자 그 남학생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 었다.

“볼라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그 남학생의 태도에 나는 기겁을 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잘 하는 것이 없는 그 남학생은 성관계만은 유일하게 자신인다는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순간의 쾌락보다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해야

2학년이 된 후,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생각지도 못했던 더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바로 임신과 낙태 이야기였다.

학교에서 가끔, “채, 누구랑 잤대.” 같은 이야기는 들었어도 성관계 후 임신과 낙태까지의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나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였다.

주인공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 친구 우리(가명)의 친한 친구 효리(가명)이다. ‘노는’ 아이도, ‘뽕쟁’ 도 아닌, 그냥 저냥 평범한 아이였던 효리(가명)는 ‘질이 좋지 않은’ 남학생 정혁(가명)과 사귀게 되었다. 효리는 정혁이 여러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정혁은 효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처음엔 성관계를 갖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둘만 있는 정혁의 빈집에서 일(?)을 저질렀다. 역시 피임은 하지 않았다. 정혁은 앞에서 말한 ‘질이 좋지 않은’ 우리 반 남학생과 같은 이유에서 콘돔 착용을 하지 않았고, 효리는 ‘실마 임신이야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피임에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다. 누구에게

나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자주 비우느; 정혁의 집에서 들은 신신치 않게 성관계를 가졌

고,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 할 무렵, 효리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같이 산부인과에 갔다.

정혁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해서 효리에게 수술비를 마련해 주었다. 수술비와 하루 입원비를 포함해 30만원이 좀 안됐다. 가격에 놀라고, 보호자 없이도 수술을 끝마치고 나온 사실에도 놀랐다. (효리의 부모님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신다.) 그 돈으로 수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효리와 정혁은 헤어졌다.

꽤 오랜 시간 사귀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헤어진 다음에도 사이가 좋다고 한다. 효리는 지금 정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정혁은 여전히 여러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 반 친구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주위에 워낙 임신하고 낙태하고를 밥 먹듯 하는 애들이 꽤 있어서, 아젠 놀라지도 않아.”

“섹스? 사랑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냐? 피임 하면 되지, 뭐.”

100% 확실한 피임법은 없기 때문에 성관계는 항상 임신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을 청소년들은 모르는 걸까? 알면서도 방심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은 걸까?

피임을 했든 하지 않았든, 성관계 후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남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낙태수술의 비용 지불이 전부인 걸까? 열여섯, 꽃다운 나이에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고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줄 것인가?

잠시 동안의 쾌락을 맛보고 평생을 후회 하지 않게, 조금만 더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이 되어야겠다.